

## 「마르틴 루텔」의 生誕 四百五十年, 現代 宗教에 있어서의 「루텔」의 課題(三) …人間中心에서 神中心으로

申南澈

前節에서 나는 集團的 神秘主義와 基督과의 關係가 現實的인 宗教運動에서 如何히 表明되었는가를 略述하였다. 이 集團的 神秘主義가 現在에 있어서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는가를 보임에는 또 한 개의 命題를 提出함에 依하여 더욱 明白히 理解되리라. 卽 『人間中心(안트로포젠트리쉬)에서 神中心(테오젠트리쉬)으로』라는 命題가 그것이다.

『다비드·휴름』에 의하여 □□的□睡에서 깨어나『코펠니쿠스[코페르니쿠스]的 轉向』을 마련한 칸트의 哲學은 近代 個人主義 思想의 學問的 最高峰을 쌓은 것이 었고 佛蘭西大革命의 自由 平等 博愛의 三大술로간은 그것의 具體的 表現이었다. 『個人은 오직 個人의 自力

個人的 意思에 쫓아서 行動할 것이고 自由로 放任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社會는 近步하리라』하는 個人主義思想의 經濟的 原則은 資本主義社會의 普遍的 眞理로서 認定되었었다. 國家는 個人에 對하여 『自由放任主義』를 取하여야왔다. 如何한 사람이 如何한 生産方法으로 얼마만한 物財를 얼마만한 分量으로 生産하든지 또한 如何한 物財를 如何한 方法으로 어디다 消費하든지 그것은 各個人의 絶對의 自由이었다. 生産의 自由 消費의 自由, 勞動의 自由, 所有의 自由는 資本主義社會의 鐵則이었다. 이러한 自由放任(렛세펠)을 그 生命으로하는 個人主義는 『個人人間』이라는 것을 一義的으로 主張하였다. 人間은 手段이 아니고 目的바로 그것이 었다.

이러한『個人人間』을 目的 바로 그것으로 삼는 人間中心의 思想이 宗教上에 反映되어서는 푸로테스탄트의 福音主義로서 나타 났다. 恩寵的으로 救主 基督教에 依하여『個人이 救濟』된다는 것이다.

個人的 原罪說이 이에 따뺏어 다니는 것은 前節에서도 말하였다. 如何튼

基礎的部分으로서의 經濟上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實質上에 있어 서도 人間中心의 思想은 움죽이지 못할 사실이 었다. 그리 하여 人間中心의 神學이 가장내로라고 闊步하는것이였다. 이러한 人間中心의 神學은 루텔의 宗教改革의 精神을 最大의 要素로 하였다.

그러나 루텔의 思想에는 따라서 宗教改革 그것에는 中世의 權威思想이 完全히 止揚되어있지 않았었다.

中世의 토마스의 要素가 多分히 內包되어 잇었다. 이 루텔의 잇어 서의 토마스의 要素를 現代의 宗教는 새로운 觀點에서 攝取하여야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것은 卽 現代宗教에 잇어 서의 루텔의 課題의 內面的인 神學的 部分인 것이다. (前 節에서 말한 現代 宗教運動의 國際的 結成으로서의 『基督教勞動 組合國際聯盟』은 그 外部的 表現이라고 하리라)

近代神學은 솔라이헬마헬을 비롯하여 歷史主義 心理主義의 感化를 받고 잇는 所謂 『文化的프로테스티슴』이였다. 그것은 모두 程度의 差는 잇을 망정 主觀的인 人間中心의 基調를 가지고 잇었다. 그러한

**近代에서부터** 最近에까지의 人類思想의 基調는 徹頭徹尾 經濟學 上에 잇어 서의 個人中心의 法則을 中軸으로하여 廻轉하는것이였다. 그러나 一但 이 個人中心의 『自由放任』(렛세펠)이 轉落하고말자 人類의 思想은 前古未曾有의 混頓을 現出하고잇는 것이다. 現在 우리가 『危機』라고 일컫는 歷史的 階段은 그 混頓의 質的 變換機—深刻의 最高潮期를 일컬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時期를 當하여 온갖 正統的 秩序는 그 根底로부터 動搖하기 始作하였다. 現在우리가 經驗하고잇는 온갖 事象은 우리에게 이것의 確證을 주고도 남는 것이 잇지 않은가.

이러한 時期에 잇어 서 어찌 宗教라고 晏然할수잇으랴. 지금까지 내로라고 뵈내든 所謂 文化的프로테스탄티슴이 그 內部로 부터도 反對된것은 勿論 最近 獨逸에 일어난 小委

**辨證法的 神學**의 主張은 宗教에 잇어 서의 危機를 表明하는 者인 것이다. 이 神學의 思想은 前述한 人間中心의 神學的 프로테스탄티슴에 反對하여 다시 聖書的 宗教改革的인 『神中心』의 思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所謂 『테오젠 트리쉬』라는 中心標語는 吾人에게 現代의 社會的 事情을 理解시키는 重要한 要素를 包含하고 잇는 것이다.

이곳에서 辨證法的 神學을 紹介하고 論證하는 餘裕를 가지지 못한 것을 遺憾으로 여기나 簡單하게 이것의 要點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하다. 現在 獨逸뿐大學 教授로 잇는 칼·발트의 著書 『羅馬書』(뢰멜뿌리프—一九一八年刊)에서부터 論議되게 된 것으로 (一,)神과 人間과를 明白하게 區別한다.

卽 神과 人間과는 永遠히 永續關係에 잇을 수가 없다.(이 點이 푸로테스탄트 敎會와는 正反對이다.) (二,)루텔에 잇어서 止揚되지 못한 토마스의 傳統을 繼承하야 有限한 被造者인 人間은 主體로서의 神의 對象으로서만 實在할수 잇다 하며(三,) 따라서 神과 人間과는 永遠히 交涉하지 못 할 것이나, 그러나 人間은 神과같이 神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것은 基礎的인 矛盾이다. 이것은 論理로서는 解決하지 못한다. 이때에 발트는 辨證法을 使用하는 것이다. 前世紀前半에 四十一歲로 早卒한 丁未第一偉大한 思想家『키엘케골』의 質的 辨證法을 借用한 것이다.

이것이 그 요점이다. 재래의 人間중심의 神學으로부터 떠나

**神中心의 敎會** 를 再現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宗教思想은 如何히 現代의 社會思想을 보이고 잇는가. 이것이 吾人이 問題삼지 않으면 아니 될 最重要한 課題인 것이다.